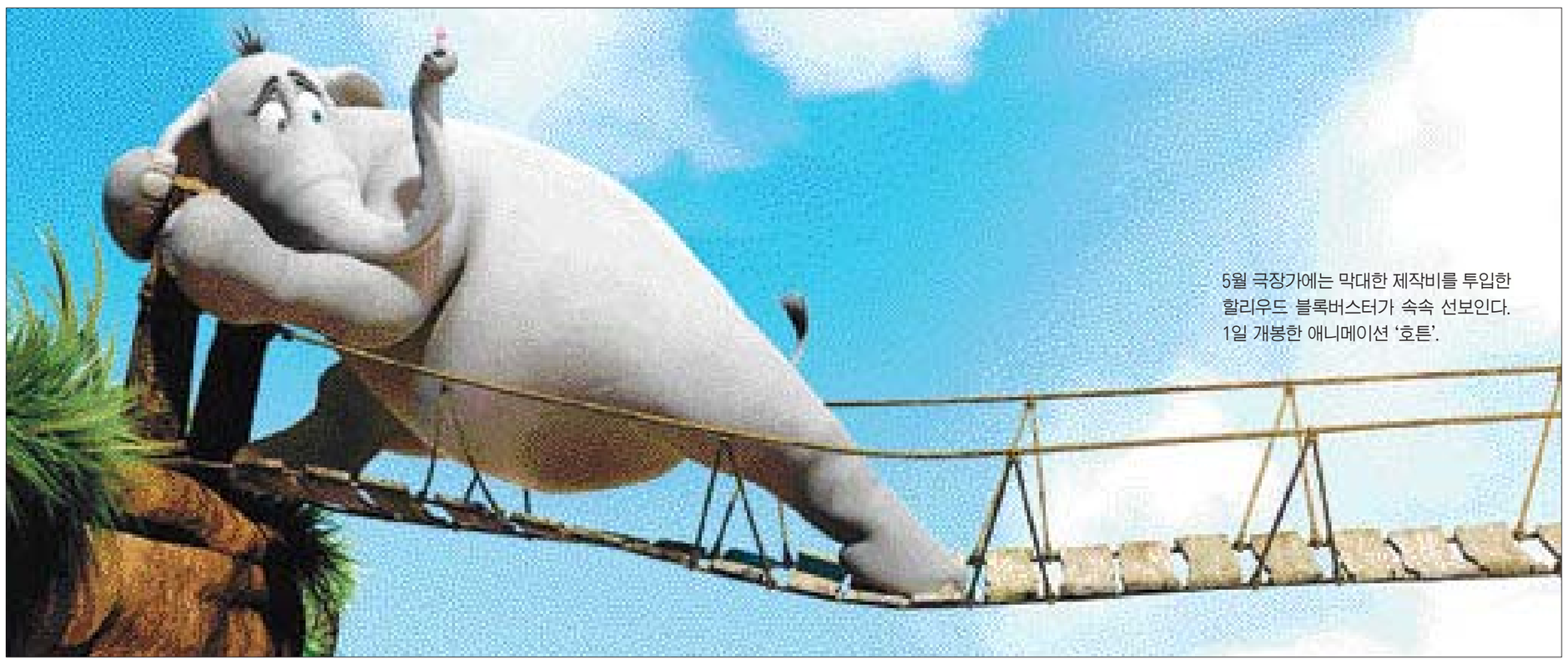

5월 극장가에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속속 선보인다. 1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호튼'.

지난 달 30일 개봉한 '아이언맨'이 포문을 열면서 올해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5월 대공습이 시작됐다

'스파이더맨 3'부터 시작해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슈렉', '트랜스 포머'로 이어진 지난해 5~6월 할리우드 막강 라인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차림표다.

반면 한국영화는 다소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하정우·윤계상 주연의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 변강쇠를 새롭게 해석한 봉태규의 '가루지기' 등이 눈에 띌 뿐이며 6월 개봉 준비중인 강우석 감독·설경구 주연의 '공공의 적3-강철중' 정도가 대항마로 꼽힌다. 5월 개봉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소개한다.

아이언맨·나니아 연대기·호튼·인디아나 존스 4…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5월 대공습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헐크' 등으로 잘 알려진 만화출판사 마블 코믹스가 직접 제작한 영화로 1968년부터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는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무기 발명가이자 대형 군수업체 회장인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만든 미사일을 홍보하러 아프카니스탄에 갔다 게릴라들의 총격을 받는다. 다기능 철갑 슈트를 입고 탈출한 토니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이 최첨단 수트로 무장한 '아이언맨'이 돼 아프카니스탄의 악당을 응징한다.

주인공 토니역으로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출연하며 그를 돕는 비서와 친구로 기네스 펠트로우, 테렌스 하워드가 호흡을 맞춘다. 현재 3편까지 제작하기로 주연배우들과 합의된 상태다.

▲나니아 연대기-캐스피언의 왕자

판타지 소설의 거장 C.S 루이스의 원작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을 잇는 판타지 시리즈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 이어 두번째 선보이는 '캐스피언의 왕자'는 '가장 재미있고 스펙터클하다'는 4권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다.

마법의 힘으로 다시 나니아의 세계를 찾은 페벤시 남매들은 자신들이 없는 동안 나니아가 무자비한 미라즈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나니아의 왕위 계승자인 캐스피언 왕자. 말하는 생쥐 리피칩과 함께 나니아 왕국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호튼

'아이스 에이지' '로봇'의 제작진이 만든 3D애니메이션로 미국 개봉 당시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정글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가졌지만 마음은 여린 코끼리 호튼이 주인공이다.

큰 귀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호튼은 어느 날 바람을 타고 들려온 '누군가 마을' 시장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긴 여정에 나선다. 미국판에서 짐 캐리가 맡았던 주인공 호튼의 목소리 연기에는 차태현이 참여했으며 개그맨 유세윤도 출연한다.

▲인디아나 존스 4

'인디아나 존스 : 최후의 성전' 이후 19년 만에 부활한 부활한 액션 어드벤쳐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해리슨 포드가 다시 뭉쳤다.

존스 박사와 대립하는 악랄한 러시아 군인 역으로 케이트 블란쳇이 출연하며 '트랜스 포머'의 샤이아 라보프가 존스의 아들로 호흡을 맞춘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7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조용히 생활하던 인디아나 존스 박사는 크리스탈 해골로 인해 러시아와 엮이게 되면서 모험의 세계로 뛰어든다.

▲스피드 레이서

'매트릭스' 3부작으로 열혈팬을 확보하고 있는 워쇼스키 형제의 신작, 혁명적인 시각효과, 세련된 스토리, 엄청난 속도의 액션과 영상이 가득하다는 시사평으로 기대감을 모으는 작품이다. 여기에 가수로,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의 출연으로 일치감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요시다 다츠오의 1967년작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에밀 허쉬, 크리스티나 리치, 수잔 서랜든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수많은 레이싱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천부적인 레이서 스피드는 경기 도중 사망한 형의 꿈을 이루기 위해 레이싱에 모든 것을 걸지만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을 뿌리치면서 시련에 직면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비스티 보이즈'

하정우·윤계상 투톱

유흥가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두 남자를 주인공으로 젊은 청춘들의 삶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추격자'로 인기 상승중인 하정우와 그룹 GOD 출신의 연기자 윤계상이 투톱으로 출연하며 윤진서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강남의 밤을 주름잡는 재현과 승우는 여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호스트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마담 일을 하고 있는 재현(하정우)은 빚 때문에 호스티스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호스트에 입문한지 3개월만에 '에이스'가 된 승우(윤계상)는 손님으로 찾아온 호스티스 은지와 만남을 이어간다.

승우와 은지는 함께 동거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거짓말과 오해가 얽히면서 은지는 승우의 곁을 따나고 승우 누나와 함께 사는 재현 역시 돈을 갚지 못해 대낮에 폭력배들에 뭇매를 맞는 등 고달픈 삶을 이어간다.

군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용서받지 못할 자'를 통해 하정우를 발굴하고, 평단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윤종빈 감독이 각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아이언맨	마블코믹스의 원작 만화 아이언맨을 SF 액션 장르로 영화화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가루지기	봉태규 주연의 부실한 청년 新변강쇠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비스티 보이즈	유흥가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호튼	작고 여린 마음을 가진 코끼리 호튼 이야기. 차태현이 호튼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엔터, 하미	
포비든 킹덤	중국 액션배우 성룡, 이연걸 주연의 무술영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별, 별 이야기 2 : 여섯 빛깔 무지개	차별과 편견을 이야기하는 옴니버스 애니메이션. 12세 관람가.
씨너스 전대	
연의 황후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역사 속에 숨겨진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하미	
테이큰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내가 숨쉬는 공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인 희노애락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스트리트 킹	키아누 리브스가 형사로 출연해 LA의 밤과 낮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킬 위드 미	살인현장이 UCC로 생중계 되는 스릴러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나의 특별한 사랑이야기	한 남자와 세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CGV(상무)	
패슬로지	의문에 싸인 죽음의 수수께끼가 밝혀지는 병리학 실험실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